

與 “불법 파업 타협 없다” … 野 “이상민 해임 반드시 처리”

국민의힘,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촉구·정부 엄정 대응 주문 민주 “본회의 단독 의결 불사…與 국조 보이콧은 이상민 방탄용”

여야가 1일 화물연대 파업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라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없고 이윤만 허울 좋은 안전이고, 민주노총 가입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로 노동 귀족들이 잘사는 대한민국,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이 슬픈 말이 없어도 좋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 휘하 화물연대의 조직적 정치투쟁에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가”라며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가. 법 위에 민주노총이 군림하는 나라여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성의장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총파업으로 국민경제를 위협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중혁 비대위원은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라며 “혹시 민주노총이 시위 때마다 외치는 한미 동맹 해체,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민족자주 실현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2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하며 대어(對野)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다수 의석(169석)을 활용해 다음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임건의안을 가결할 것”이라며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에 이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 국회 내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안전 없이도 본회의를 개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법안심사 지연 등으로 본회의에 올릴 다른 안건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보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만큼 김 의장을 상대로 강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해임건의’ 강행을 이유로 국정조사 무용론을 들고나온 데 대해서도 반격을 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은 별개 문제”라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이상민 방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당 특위 위원들끼리 수차례 워크숍을 여는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유가족들과의 자체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2일에는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여론전도 강화할 태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 시 추진키로 한 ‘이상민 탄핵소추안’과 관련, 이미 외부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박 최고위원은 “(탄핵소추는) 사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라 사실은 법무법인의 의견도 들었다”며 “이십 몇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태원 참사 국조 유가족 간담회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사저 반경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집시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 통과…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 별도 청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아 각각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는 두 대상을 합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이태원 행안위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서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과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 당시 체포·구금된 피해자들이 과거 수령한 보상금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추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운장호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형 범죄와 후형 범죄 사이의 시간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화해 차등된 법정형을 규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어스테핑 중단’ 윤 대통령 책임 57%

코리아리서치 등 4개사 여론조사 지지율 32%…2주만에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약 2주만에 30%대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엠베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 10월 3주 차와 11월 1주 차에 31%를 기록했지만, 11월 3주 차에 29%

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2주 만에 다시 30%대 초반으로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p) 떨어진 60%로 조사됐다. 지난달 18일 이후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된 것과 관련, 도어스테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2%로 ‘필요하다’는 응답(44%)보다 높았다.

도어스테핑 중단 책임으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관’을 꼽은 응답자는 57%, ‘MBC 기자의 무리한 발언 태도’를 선택한 응답자는 31%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친윤 모임 ‘국민공감’ 7일 출범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이름은 기존 ‘민들레’에서 ‘국민공감’으로 바뀌 오는 7일 공식 출범한다.

한 친윤계 의원은 1일 “의원모임 명칭이 ‘국민공감’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7일 첫 번째 공부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모임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여가 참여 의사를 밝혀, 출범과 동시에 당내 최대 규모 의원모임이 될 전망이다.

당초 ‘민심 들어블레(레)’를 줄여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출범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미뤄졌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친야 성향 매체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 이름을 바꿔 출범하게 됐다.

모임에는 친윤계 핵심으로 ‘민들레’ 공동 간사를 맡았던 이철규 의원과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모임은 6월 ‘윤핵관’ 장제원 의원 주도로 추진됐으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의 공개 제동으로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장 의원 역시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공감’은 첫 공부 모임에 103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는 주제로 강연을 들은 뒤 토론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전원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